

바이든에 성난 아랍계 민심...내년 대선 변수되나

“인질이 먼저” 휴전 논의 소극적...무기 지원 등 친이스라엘 행보 아랍계 미국인들 “우리 목소리 지워졌다” 분노...“표심 잃을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봉쇄와 공습으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자지구의 임시 휴전 제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친이스라엘 행보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미국 내 아랍 사회에 분노가 커지고 있다.

24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은 많은 아랍계 미국인들이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휴전 논의에 나서지 않는 바이든 대통령에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여론이 내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아랍 인구는 대선에서 주요 경쟁지로 꼽히는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에서 2~5% 정도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미시간주의 아랍계 인구는 가장 많은 5%에 달한다. 다른 경쟁주인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의 경우 1.7~2% 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에서 50.6%의 표를 얻어 47.8%를 얻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했으며, 펜실베이니아에서는 바이든 50.01% 대 트럼프 48.84%로 8만1천 표 이하의 근소한 차이로 겨우 승리했다.

내년 대선에서 이들 지역의 무슬림 인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은 적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 바이든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 바이든에게도 표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빙의 승부수가 펼쳐질 경우 스윙스테이트에서 아랍계 미국인들의 표심이 판을 흔드는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아랍계 미국인들은 지난 7일 벌어진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비판하면서도 이스라엘 과도한 대응, 그리고 이를 규탄하지 않는 바이든 대통령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휴전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인질이 풀려야만

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등 휴전 논의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에서 무슬림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미시간주 디어본의 첫 무슬림 시장 압둘라 함무드는 최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가자지구에 물과 전기, 식량 공급을 막은 이스라엘의 결정을 바이든이 규탄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무슬림)의 목소리가 완전히 지워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대표해달라고 선출한 이들이 침묵하는 지금의 상황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며 “가자지구에 갇혀 있는 우리 가족들은 무시당하고 있고, 휴전을 원하는 요구는 전쟁의 복수에 묻혔다”고 적었다.

뉴욕 아랍계 미국인 협회 상무이사 출신인 린다 사르수르는 지난 21일 열린 미 최대 무슬림 단체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AIR) 강연에서 무슬림들이 미국 국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며 정치적인 기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143억 달러(약 19조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랍계 표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스와스모어 대학에서 평화분쟁학을 가르치는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사드 아산은 이번 지원안을 두고 “바이든의 정치적 미사여구를 보고 있으면 믿기 어려운 정도”라며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에 수십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쏟아부으면서 팔레스타인에는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랍계 미국인들의 여론이 나빠지자 백악관 측은 아랍계 인사들을 만나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또 물밑에서 하고 있는 여러 노력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적신원사 직원들이 2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나눠주고 있다. 팔레스타인 적신원사는 성명에서 물, 식량, 의약품 등을 실은 트럭 8대가 전날 늦게 가자지구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친이란 무장단체 “쿠웨이트·UAE 미군기지 공격” 위협

“최근 드론 공격에 미군 24명 부상”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중동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친이란 무장세력이 여내 미군기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이스라엘 일간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무장단체 ‘알위야트 알 와드 알 하크’(AWH)는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에서 “시온주의 단체(이스라엘)와 미국의 범죄에 대응하고 팔레스타인 순교자들의 복수를 위해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UAE)의 미군 기지들을 우리의 정당한 표적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AWH는 이란이 지원하는 이라크 무장세력 ‘카타이브 헤즈볼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을 상대로 한 공격을 주장하거나 위협하는 데 활용되는 위장조직으로 보기도 한다.

친이란 성향으로 분류되는 중동 곳곳의 무장세력들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을 틈타 최근 공세와 협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과 관련해 “미군과 연합군은 이라크에서 10회, 시리아에서 3회 각각 드론이나 로켓 등으로 공격을 받았다”며 “우리는 이 공격이 이란혁명수비대(IRGC)나 이란 정권의 지원

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받은 드론 공격으로 미군 24명이 부상했다고 NBC 방송에 밝혔다.

사령부는 이달 18일 시리아 남부 알타프 기지를 최소 2대의 단방향 공격 드론이 습격해 미군 20명이, 같은날 이라크 서부 알아사드 기지 공격으로 미군 4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지난 23일에도 알타프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 이라크 무장조직 이슬람 레지스탕스(Is-lamic Resistance)는 같은날 시리아 알타프와 알말리키아에서 미군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며 배후를 자처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포탄은 50만발”...한 달 이상 사용량

미국 전쟁연구소 분석

“남포항 유류저장시설 확장”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포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달 이상 사용될 수 있는 물량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에스토니아군 관계자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30만~50만 발을 제공했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했다.

북한이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에 보낸 컨테이너가 1천 개에 달하고 컨테이너마다 포탄 300~500발

실한다고 가정해 나온 계산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하루에 포탄 약 1만 발을 소모하고 있다. 북한이 보낸 포탄만으로도 한 달 이상 포격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은 지난해 여름의 경우 하루 4만5천~8만 발 포탄을 퍼부었으나 최근에는 사용량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ISW는 “북한이 러시아로 선적한 화물의 정확한 내용물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구조선 시기 생산된 포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제공한 포탄은 실패 비율이 평균보다 높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러시아군에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유엔 제재를 뚫고 몰래 들어오는 유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미국 상업위성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북한 남포 일대 위성사진에는 지난 7월 이후 3개월 사이 새로 지어진 유류 저장고 3곳과 추가 예정 부지 5곳이 포착됐다고 RFA가 전했다.

남포항 일대 유류 저장고는 7월까지 총 32개였는데 신설 3개에 5개 추가 부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4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정성학 연구위원은 “유엔 제재로 원유·정유 대북 수출 허용량이 제한됐지만, 남포항 유류 저장시설은 오히려 확장하고 있다”며 “북한이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으로 밀반입해서 비축량을 늘려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美공화당, 4번째 하원의장 후보 ‘親트럼프’ 존슨 선출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선출과 낙마를 반복하고 있는 연방 하원의장 후보로 마이크 존슨(51·루이지애나) 의원을 새롭게 뽑았다.

공화당은 24일(현지시간) 밤 비공개로 의원 총회를 열고 하원 의장 후보로 존슨 의원을 선출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오전 톰 에머 원내 수석부대표(미네소타)가 3번째 후보로 선출됐다가 당내 초강경파 20여 명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한 채 물러난 뒤 몇 시간 만에 4번째 후보가 나왔다.

존슨 의원은 2015~17년 루이지애나주 주 하원의원을 거쳐 2017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일부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이민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을 때 지지를 표명했는데 보듯 강경 보수 성향이며, 대표적 당내 친트럼프 의원 중 한명으로 꼽힌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력에 적극 동참했다.

존슨 의원은 이날 오전 8명의 후보가 참여한 당내 경선에서 에머 수석부대표에게 밀렸으나 에머가 후보직에서 사퇴함에 따라 자신에게 돌아온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공화당이 심각한 분열상을 보이는 가운데, 존슨 의원이 하원의장 당선 정족수(현재 전체 하원의원 433명의 과반)인 217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게 미국 언론의 예상이다. /연합뉴스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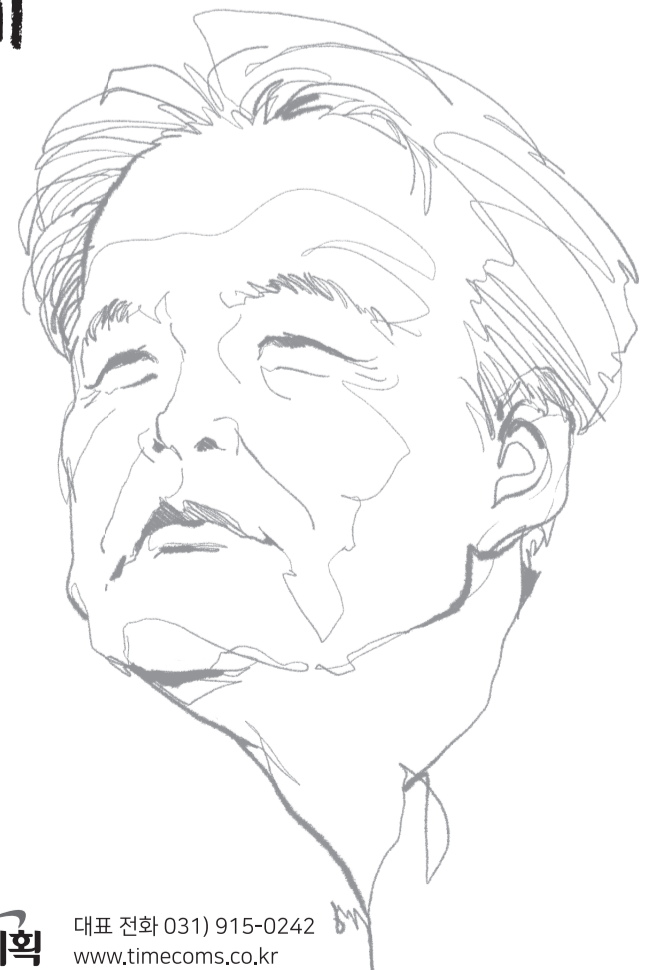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등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